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7 _ 2014. 11 | 김형주 연구위원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7 _ 2014. 11 www.nypi.re.kr

발행일 2014. 11. 28 발행인 노 혁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VOL.57_2014. 11 ▶ 김형주 연구위원

I. 연구목적	02
II. 연구방법	03
III.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04
IV. 정책제언	09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I. 연구목적

- ▶ 미래 한국 혹은 통일 한국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그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의 교류와 통일인식,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상호이해 방안이 마련되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향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와 상호이해에 대한 인식, 요구, 전망, 가치, 태도를 파악하고 둘째, 청소년들의 교류 활동을 통해 미래 통일 한국의 남북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II. 연구방법

■ 문헌연구

-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로서 국내외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통일의식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통일교육 및 통일과정과 관련된 정책현황을 고찰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세부내용을 설정하였음. 첫째로 국내외 남북한 교류, 통일의식, 사회통합, 탈북청소년들의 특징과 의식, 둘째로 설문조사지 항목 구성 자문, 셋째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진행하였음. 또한 주요한 문헌고찰과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주요 논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음.

■ 설문조사

- ▶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음. 교육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약 2,000명을 층화 다단계확률표집을 통해 조사하였음. 주요 조사내용은 북한 청소년들과의 교류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준비, 기대, 전망에 대한 인식,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 통일 한국에 대한 청소년으로서의 요구, 통일 한국에 대한 청소년으로서의 전망과 역할 등임.

■ 정책협의회

- ▶ 본 연구가 통일 한국의 준비와 관련된 정책연구로 추진되기 때문에 남북한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정책적 필요요소 등에 대해 그리고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를 추진하였음.

Ⅲ.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1. 조사개요

■ 모집단의 정의 및 분석

- ▶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4년 기준 교육통계연보의 전국 학생 현황 DB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당시 전국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비일반고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 ▶ 표본 배분은 17개 시도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설계, 본 조사에서 지역과 학교급 등이 주요 변수에 해당되어 이들 변수를 층화변수로 사용, 층화과정은 크게 2단계로 하며 1단계로 17개 시도를 구분하여 층화하고 2단계로 학교급별로 구분해 층화함.

■ 조사 설계

- ▶ 조사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 표 본 수 : 총 2,000명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2.2\%$ Point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 조사내용 :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에 대한 생각,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등
- ▶ 조사기간 : 2014년 7월 7일 ~ 8월 11일

■ 응답자 특성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사례수(명)	%
전체		2,000	100.0%
성별	남성	926	46.3%
	여성	1,074	53.7%
학교급	초등학교	564	28.2%
	중학교	705	35.3%
	고등학교	731	36.6%
종교	기독교	535	26.8%
	불교	200	10.0%
	가톨릭	153	7.7%
	무교	1,098	54.9%
	기타	14	0.7%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1,286	64.3%
	보통	552	27.6%
	불만	162	8.1%
아버지의 교육수준	상	162	8.1%
	중	1,177	58.9%
	하	661	33.1%
어머니의 교육수준	상	77	3.9%
	중	1,053	52.7%
	하	870	43.5%
가정의 경제수준	상	137	6.9%
	중	1,709	85.5%
	하	154	7.7%
이산가족 유무	있다	103	5.2%
	없다	1,897	94.9%

2. 주요결과

■ 북한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주요 실태

- ▶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은 81.7%로 ‘없다’는 응답 18.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매체 경로로는 ‘TV 뉴스’가 57.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수업’(21.8%), ‘인터넷’(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대화정도로는 부모(36.9%), 학교선생님(29.6%), 친구(28.8%),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15.7%) 순으로 나타났다.
- ▶ ‘북한은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 ‘힘을 합쳐 도와야 할 대상’ 응답이 40.1%로 가장 높고,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위험대상’(21.9%), ‘조심해야하는 대상’(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청소년의 이미지로 ‘가난하다’(69.0%), ‘허약하다’(54.1%)는 이미지가 가장 높고, ‘믿을 수 없다’, ‘조용하다’는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관심정도는 ‘없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35.3%로 ‘있는 편이다’라는 의견의 27.8%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생활수준’이 48.4%로 가장 높고, ‘정치’(38.7%), ‘경제수준’(36.5%), ‘북한사회 특성’(33.9%), ‘언어’(26.5%), ‘교육 수준’(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통일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주요 실태

- ▶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3.7%로 ‘필요 없다’는 응답 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29.3%),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정치 체제와 생각이 달라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고,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사람들을 도와줘야하기 때문에’(15.6%), ‘현재 상태가 좋아서’(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이익정도로는 ‘북한 이익’이라는 의견이 86.6%로 ‘남한 이익’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음. 통일 이후 전반적인 삶의 변화로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52.0%로 높게 나타났음.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으로 차이나는 문제’가 30.1%로 가장 높고, ‘이념, 사상이 차이나는 문제’(25.6%), ‘국가의 경제적인 어려움’(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로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고, ‘전쟁도발이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21.0%), ‘북한의 자유화 및 개방이 이루어져야한다’(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북한 사이의 전쟁 위험정도에 대해 ‘전쟁 위험이 있다’는 응답이 77.2%로 ‘전쟁 위험이 없다’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음.

■ 북한청소년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주요 실태

- ▶ 탈북 청소년에 대해 들어본 경험과 관련 ‘들어본 적 있다’라는 응답이 72.7%로 ‘들어본 적 없다’(27.3%)보다 높게 나타났음. 탈북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족은하고 안타깝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이다’(25.0%),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지녀 우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다’(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 북한 청소년에 대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33.5%로 ‘친근하게 느껴진다’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차이로는 ‘언어’ 차이가 7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고방식’이 75.9%로 높게 나타났음. 북한 청소년을 만나다면 취할 행동으로는 ‘담담히 대화하겠다’가 59.9%로 가장 높고, ‘같은 민족으로서 환영하여 대화하겠다’(16.9%),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대화하겠다’(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북한 청소년을 친구로 사귀어 의향으로는 ‘친구로 사귀겠다’는 응답이 83.9%로 ‘친구로 사귀지 않겠다’(16.1%)보다 높게 나타났음.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갖고 있는 호감도 및 친밀도에 대해서는 유럽 청소년이 61.4%로 호감도가 가장 높고, 친밀도는 미국청소년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반면 일본 청소년에 대한 호감도 및 친밀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북한 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주요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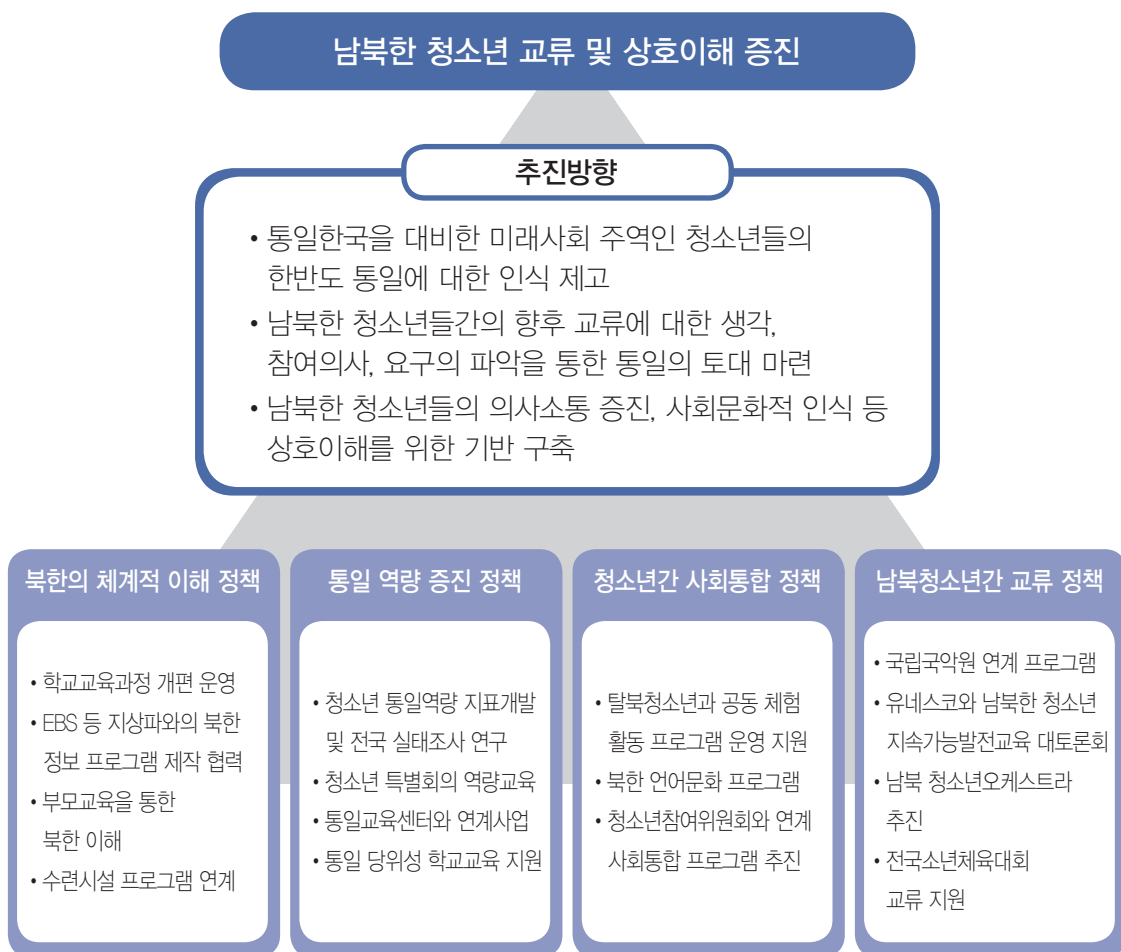
- ▶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생각으로는 ‘교류해야한다’는 응답은 87.8%로 ‘교류에 반대한다’는 응답 12.2%보다 높게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로는 ‘정부 및 정부기관, 민간차원 모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가 59.6%로 가장 높고,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추진해야한다’가 25.7%로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가 33.2%로 가장 높고, ‘생각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29.9%), ‘안전문제 때문에’(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참여할 의사로는 ‘있다’는 응답은 69.8%로 ‘없다’는 응답 30.2%보다 높게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 참여시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관광 및 견학여행’이 3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21.2%), ‘스포츠’(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 시 적당한 횟수로는(1년 기준), ‘연 2회’가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수시로’(19.9%), ‘연 4회’(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적당한 만남의 장소로는 ‘남한과 북한 번갈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남한’(10.2%), ‘판문점(공동경비구역)’(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남북한 청소년 교류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전통문화’가 28.3%로 가장 높고, ‘연극, 음악 등 예술’(20.0%), ‘체육’(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북한 청소년과의 정서적 공감에 대한 분석결과

- ▶ 정서적 공감 부분에 대한 분석에서 4개 하위요인(5점 평균)을 살펴보면 ‘불안’이 3.76점으로 가장 높고, ‘심적부담’(3.66점), ‘기쁨’(3.52점), ‘슬픔’(3.43점)의 순으로 나타났음.
- ▶ 「기쁨」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58점)이 ‘남성’(3.45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각각 3.53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종교별로는 ‘불교’ 및 ‘가톨릭’이 3.59점으로 높고, 학교생활 만족도 및 부모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슬픔」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55점)이 ‘남성’(3.28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5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부모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불안」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85점)이 ‘남성’(3.64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81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종교별로는 ‘가톨릭’이 3.82점으로 높고, 부모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심적부담」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3.75점)이 ‘남성’(3.56점)보다 높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3.80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종교별로는 ‘무교’가 3.71점으로 높고, 부모님 교육수준 및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음.

IV. 정책제언



【그림 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방향

■ 북한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위한 정책 추진

- ▶ 학교교육과정에 북한 관련 정보 및 소식 전달수업 편성·운영
 -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자율·재량활동시간을 통한 북한 실상 및 관련 정보에 대한 특강 등 편성·운영
- ▶ EBS 등 방송매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북한에 대한 정보 및 인식 함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관련 기관 협조 하에 지상파 방송에서 청소년 대상의 북한 정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지원
- ▶ 북한 관련 정보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가정 내 정확한 북한 정보교류를 위한 초·중등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지역 청소년단체·수련시설을 통한 북한정보에 대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주제 중 하나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운영 지원

■ 통일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 ▶ 청소년 통일역량 지표 및 전국 실태조사 연구 추진
 -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전국 청소년들의 역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추진
- ▶ 청소년특별회의의 통일 역량교육 및 리더십캠프 지원
 - 중앙단위의 청소년협의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청소년 통일 역량교육 및 리더십 캠프 추진

- ▶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일교육 연계 추진
 - 전국에 지역별로 운영중인 통일교육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의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 및 전망에 대한 교육 추진
- ▶ 사회, 역사 등 교과교육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교육 협력 지원
 - 전문강사 파견 등 학교 교과수업의 일부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및 지원

■ 남북한 청소년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 ▶ 탈북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과의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 북한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특별 강좌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의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전문강사를 통한 북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실태와 전망에 대한 특강 운영 지원
- ▶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하나원 탈북청소년간의 사회통합 캠프 추진
 - 전국 시도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하나원 탈북청소년 간 지역별 특색 있는 테마를 주제로 사회통합 청소년캠프 지원 및 추진

■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정책 추진

- ▶ 국립국악원 및 지역 국악원과 연계한 탈북 청소년들과 공동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립국악원과 지역 국악원이 연계하여 탈북 청소년들과 국내 청소년들 공동의 국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유네스코와 연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교육 대토론회 개최
 - 유네스코의 교육문화지원 기능을 기반으로 남북한 청소년들 간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대토론회 추진

- ▶ 남북한 합동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성 및 공연 추진
 - 통일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동아리와 북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합동 구성 및 남북한 공연 추진

- ▶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추진
 - 매년 봄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에 북한 청소년 스포츠팀의 초청과 국내 청소년 스포츠팀과의 합동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및 상호교류 추진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